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내일 개막

## 한국, 금 3개 이상·톱10 목표

17개 세부종목 116개 금메달 놓고 92개국서 경쟁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세계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가 한국시간 7일 오전 4시(현지시간 6일 오후 8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으로 17일간 열전의 시작을 알린다.

이탈리아는 20년 만이자 동·하계를 합해 4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을 열었고, 하계 대회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는 무려 4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발텔리나 클러스터, 발디피 엠메 클러스터에서 스キー, 스노보드 종목이 나뉘어 개최된다.

여타 대회처럼 개최 열기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달아오르기는 어렵지만 조직위원회는 '파로 또 같이' 느낌의 개회식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참이다.

개회식은 이탈리아어로 '조화'를 뜻하는 '아르모니아' (Armonia)를 주제로 펼쳐진다.

출연진만 1200여명에 달하며,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나선다.

밀라노 외에 코르티나담페초와 프레다초, 리비뇨에서 동시에 행사와 선수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며, 성화대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 모두 설치돼 '화합의 불꽃'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4일(현지시간) 밤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광장 인근 오륜기 조형을 위로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 야구 WBC 대표팀 명단 오늘 발표

총 30명 승선… 일본·대만·호주·체코와 C조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이 6일 발표된다.

KBO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WBC 대표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 C조 경기에 나선다.

C조에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호주, 체코가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이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C조 국가들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SBC) 세계 랭킹은 일본이 1위, 대만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4위, 호주 11위, 체코 15위 순이다.

일본이나 대만 중 최소한 한 팀을 이겨야 8강이 열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회 대회에서

3위에 오르고 2009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이후 열린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KBO는 이번 WBC에서 만큼은 8강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 지난달 사이판에서 1차전지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류지현 감독은 지난달 사이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인터뷰에서 최종 명단 30명에 대해 "투수는 15명 정도를 넣을 것"이라며 "지금 페이스라면 2차 캠프 때 좋은 커디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했다.

연합뉴스



## "선수들 의욕 상승… 개막전 기다려진다"

제주SK FC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 마무리  
선수단 탄탄 구성… 2026시즌 상위권 도약 기대

제주SK FC가 일본 가고시마 전지 훈련을 마무리하고 제주에서 개막 전 준비에 들어간다.

▶▶ 사진

제주SK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짧지만 2026시즌 비상을 향한 일본 가고시마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과정을 믿는 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선수들의 하고자하는 의지에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디테일을 더했다. 또 한 일본 현지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고, 전

술의 완성도까지 높였다.

특히 기존 선수단과 새로 입단한 선수들 간 호흡에도 중점을 두며 시즌 운영 구상과 선수 기용의 기준을 보다 탄탄하게 다졌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권창훈, 박장준 김신진 기타스 네게바 세레스틴 강동휘 박민재 유승재 권기민 등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상위권 도약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다.

2시즌 연속 주장 완장을 맡은 이창민은 "훈련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집중도가 좋아졌고,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자연스레 커졌다"

라며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승리를 보답하고 성공적인 시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 시즌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전지훈련을 마친 제주SK는 4·5일 휴식을 취한 후 6일 다시 클럽 하우스에 모여 3월 1일 예정된 광주FC와의 홈 개막전을 준비한다.

'주도하고 압도하는 축구'를 선언한 코스타 감독이 신임 광주 이정규 감독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이자 홈 첫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SK 관계자는 "남은 기간 경기 감각을 극대화하고, 컨디션 조절과 조직력 완성을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건 오현규가 처음이다.

쉬페르리그는 '빅리그' 진입을 위한 발판 성격이 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는 '철기동' 김민재가 과거 폐네르바체에서 활약하며 빅리그 구단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은 바 있다.

오현규는 2023년 1월 수원 삼성을 떠나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 입단하며 유럽 생활을 시작했다.

셀틱에서 한 시즌 반 동안 공식전 47경기에 출전해 12골을 기록하며 '도메스틱 트레블' (국내 3관왕) 달성을 일조했다.

더 많은 출전을 위해 2024년 여름 헹크로 등지를 옮긴 그는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를 포함해 공식전 32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올리며 한층 성숙한 기량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베식타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오현규. 연합뉴스

## 오현규, 트루키예 '베식타시'로 이적 이적료 241억… 계약기간 3년 6개월

축구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오현규(24)가 벨기에 KRC 헹크를 떠나 트루키예 베식타시로 이적했다.

베식타시는 5일(한국시간) 헝파이지를 통해 오현규 영입을 발표했다. 구단에 따르면 이적료는 1400만유로(약 241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3년 6개월이다.

오현규는 주전 중앙 공격수를 상정하는 등번호 9번을 달고 뛴다.

베식타시는 트루키예 수도 이스탄불을 연고로 둔 강팀이다. 같은 곳이 연고인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와 함께 트루키예 쉬페르리그의 '3강'으로 꼽힌다.

쉬페르리그에서 16차례, 트루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 C조 경기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2006년 1회 대회에서

## 40년 전통 제주 당구의 자존심 산호당구재료

그동안 여러분의 배려로 오늘날까지 산호당구재료가 제주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마움에 항상 검정된 당구재료와 검정된 기술진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브랜드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한발 큐, 빌킹큐 및 빌킹제품, 고리나 큐, 고리나 천 및 고리나 제품, 은성 큐 및 기타 여러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있음

하지만 다소 부족함도 많이 있었으나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로 사업을 이어 왔습니다. 이런 고마움에 보답코자 앞으로 산호당구재료 거래 업소는 **(작업 및 재료일절)** 그동안 **감사의 마음에 보답코자 모든 재료를 할인가로 판매코져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호당구재료가 영원히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큐 수리 공방 운영



**산호당구재료**  
신설 · 매매 · 개인용품 · 큐수리



**한국선물**  
각종캐 및 트로피  
단체용 품  
행사용 품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757-5710 H.P. 010-3699-3967